

高麗 後期 菩薩像 研究

鄭 恩 雨*

- I. 머리말
- II. 高麗의 對中交涉
- III. 高麗 後期 菩薩像의 類型과 特徵
- IV. 맺음말

I. 머리말

高麗時代는 前期, 中期, 後期로 구분되며, 후기는 고려 왕실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오는 1270년부터 고려가 멸망하는 1392년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 현재 알려진 고려 후기의 불교조각은 약 100여 점에 이르는데, 이 시기는 불교에 대한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원경제의 발달, 그리고 공덕사상이 보편화됨으로서 불상을 많이 조성하였다. 고려 후기 불상의 특징으로는 불상의 몸 안에 발원문 등 각종의 물건으로 구성된 복장물을 넣기 시작하는 점과 金銅佛이 많아지고 木造와 乾漆 등의 새로운 재질이 등장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1274년 거행된 忠烈王과 元世祖의 딸 齊國大長공주와의 혼례로 알 수 있듯이 혼인관

* 동아대학교 겸임교수

계를 통해 이루어진 원 황실과의 밀접한 관계는 당시 고려의 불교미술에도 반영되어 티베트의 조각을 토대로 형성된 라마교 불상양식이 수용되어 이전과는 다른 특이하고 다양한 유형의 불상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이에 고려 후기는 遼나 宋으로부터 새로운 양식이 들어와 수용된 고려 중기의 불교조각 양식이 계승되면서 새로운 라마불교 양식이 元으로부터 수용되어 정착되었다.

본고에서는 고려 후기 불교조각 가운데 보살상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시원과 변천과정을 밝혀 그 계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보살상은 예배의 주 대상으로 엄격한 규범을 따라야 하는 여래상보다는 표현상의 허용범위가 넓어 시대적인 양식 변천이나 그 특징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외래요소를 비롯한 고려 후기 불교조각의 다양한 양상을 잘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 후기의 보살상을 옷을 입은 형식이나 영락의 표현, 자세에 따라 크게 變形通肩式, 通肩式, 天衣式, 그리고 喇嘛式 보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보살상의 다양한 유형들은 특히 중국과의 대외교섭에서 유입되는 새로운 유형의 불상들의 수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점에서 외래요소의 수용 배경도 아울러 밝히고자 한다. 고려 후기와 관련된 중국의 대외교섭은 遼, 宋, 元이 거론되는데 이 가운데 宋과의 불교미술 교섭관계, 그리고 元과 관계된 라마교 불교미술의 수용 배경 등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보고자 한다.

II. 高麗의 對中交涉

고려시대 중국과의 교섭은 대부분 宋과 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후기에는 元과 실제적인 문화교류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요와의 교섭에 대해서는 이미 간략하게 살펴본 바 있어¹ 여기에서는 송과의 관계 중에서 불교미술 교류와 관련된 기록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어서 고려 후기의 對元交涉를 통한 라마식 보살상의 유입 배경에 관하여도 언급해보고자 한다.

¹ 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鄭恩雨, 「高麗前期 金銅菩薩像 研究」, 『美術史學研究』 228·229 합집(2001.3), pp. 18-23; 鄭恩雨, 「遼代 佛像彫刻의 研究(II)」, 『미술사연구』 14(2000.12), pp. 91-95 참조.

1. 高麗 中期 宋과의 불교미술 교섭

고려 중기 중국과의 불교미술의 교류에서 주목되는 것은 宋과의 관계이다. 송과의 대외 교섭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본고에서는 불교미술의 수용 관계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는 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서로 간에 왕래가 빈번하였다. 고려를 왕래하면서 무역을 했던 많은 강남의 상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義天이라든지 杭州 天竺寺에 묵었다가 원 황실로 안내된 고려의 승려 등 상류층 승려들의 왕래 또한 매우 빈번하였다.² 이 시기는 이러한 상인이나 승려들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었고 특히 고려 불교문화의 폭을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불교 조각의 수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고려가 宋을 통해 불상과 그곳의 彫刻匠 등을 구해오고자 시도한 점이 주목된다. 金良鑑은 熙寧 甲寅歲(1074)에 사신으로 入宋하였을 때 “畫塑之工”을 구하고자 하였고, 이에 神宗이 응할 자를 모집토록 했었던 것 등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주는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된다.³ 또한 고려인이 명주에서 관음상을 직접 조각하여 이를 고려로 운반하려고 하였다는 내용도 흥미롭다.⁴ 이 내용은 중국에서 불상을 직접 주문하여 고려로 가지고 온 사례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인데 이러한 예는 고려만이 아니라 비슷한 시기 일본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 兵庫 法恩寺에 있는 南宋代 木造菩薩坐像은 像의 머리 안쪽에 써 있는 墨書銘에 의하면, 1237년(嘉熙 元年) 중국 명주에서 沈一郎이라는 佛師가 제작했으며, 造像主는 6개월 전에 2번이나 入宋한 建仁寺 승려라는 것이다.⁵ 물론, 일본은 京都 清涼寺 木造如來立像처럼 이미 985년에 일본 승려 劔尼이 송에서 모각하여 가져온 사례가 있어,⁶ 이는 당시로서 드문 상황이 아니었음도 확인된다. 송대 불상의 고려 전래는 이밖에도 1115년에 송에 들어가 1116년에 돌아온 權適이 중국에서

2 “上批高麗僧三人 見寓杭州 天竺寺 可令鈴轄司差指使一名 乘驛引伴赴闕 熙寧九年十二月” 潛說友, 『咸淳臨安志』 40 詔令1 神宗皇帝: 張東翼, 『宋代歷史資料集錄』(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 423-424.

3 安輝濬, 「高麗 및 朝鮮王朝初期의 對中繪畫交涉」, 『亞細亞學報』 제13輯(1979.11), pp. 143-144 참조.

4 “昔高麗國來錢塘 刻觀音聖像 及昇上船竟不能動 因請入明州開元寺 供養後有說問 無刹不現身聖像 爲甚不法高麗國 長慶稜云現身雖普觀相生偏 法眼別云識得觀音末” 普濟 〈五燈會元〉 6: 張東翼, 위의 책, p. 393.

5 奈良國立博物館, 『東アジアの 佛たち』(1996), p. 249.

6 金理那,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一潮閣, 1989), pp. 207-208.

돌아올 때 觀音像과 法華書塔을 황제로부터 받아 귀국하여 오랫동안 가문의 보배로 삼아 왔다는 기록을 통하여도 확인이 가능하다.⁷ 즉 고려는 장인뿐만 아니라 불상까지도 직접 가지고 오는 등 적극적으로 중국 송대의 불상양식을 수용하고자 한 것이다.

고려는 북송을 이은 南宋(1125-1279)과 정치적인 유대관계는 약화되었지만 사무역을 통한 물품 교류는 계속하였고 승려들 간의 교류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졌다. 특히 고려와 중국 강남지역과의 교류는 이후 고려 후기까지 지속되어, 鐵山 紹瓊의 고려 방문과 중국 仰山으로 대장경을 移安하는 사례들로 이어지게 된다.⁸

불서가 교류된 사실로는 1258년 송의 延慶寺에서 고려의 조계종 승려 法雲 卓然에게 佛舌語·祖師讚·淨土院記를 보내왔으며,⁹ 延慶寺의 沙門 法言은 卓然에게 佛居記를 보냈고 이를 다시 圓悟國師 天英(1215-1286)에게 드리기도 하였다.¹⁰ 그리고 眞靜國師(1206-1268 이후)가 寧波府에 있던 延慶寺의 천태종 승려와 서신과 불서를 교류했던 사실도 밝혀졌으며,¹¹ 1240년(高宗 27) 妙法蓮華經을 조판할 때 쓴 崔瑀의 跋文에는 비구 四一이 宋本人 戒環解義를 얻어 가지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그것을 조판하게 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坦然國師(1070-1159)가 海商 方景仁을 통해 四明의 無示禪師(1080-1148)에게 자기가 지은 佛書를 보내고 印可를 받은¹² 사실도 역시 사무역이나 불서 왕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이다. 이는 몽고와의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남송본의 저서들이 고려에 전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매우 주목되는 기록이며,¹³ 불서의 교류와 승려들의 왕래는 남송이 멸망할 때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2-13세기에 걸쳐 고려에 들어온 남송의 불서들은 고려 중기 불교의 사상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고려의 論疏들도 宋에 전해져 유통되었는데, 1126년(仁宗 4) 고려의 사신인 金富軾과 李周 등이 奉化 延慶院에 있던 圓照法師 梵光(1064-1143)을 방문하여 원효대사의 論疏 200卷을 전하였다고 한다.¹⁴ 1174년(淳熙 1) 明州 道士 沈恣이 고려의 『三國史記』 50卷을

7 崔滋, 『補閑集』 下.

8 許興植, 『高麗佛敎史研究』(一潮閣, 1986), pp. 706-717.

9 許興植, 『眞靜國師와 湖山錄』(民族史, 1995), p. 74.

10 松廣寺 편, 『曹溪山 松廣寺誌』(2001.10), p. 122.

11 許興植, 위의 책(註9), pp. 87-91.

12 『朝鮮金石總覽』 上, 『斷俗寺大鑑國師塔碑』; 張東翼, 앞의 책, pp. 415-416.

13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民族史, 1998), p. 97.

14 梵光의 자는 和甫인데 延慶太守 呂公滌이 이곳으로 모셔왔다고 한다. 靖康년간(1126-1127)에 고려에서 사절을 보내 조공하였으며 국왕이 법의와 원효가 편찬한 논소 200권을 보냈다고 한다. 張津, 『乾道四明圖經』 11, 『延慶

孝宗에게 바쳤던 사실,¹⁵ 남송에 전해진 고려의 曆書 『高麗日曆』,¹⁶ 고려의 전적을 읽고 읍은 牟獻(1227-1311)의 시문¹⁷ 그리고 台州의 靈濟庵에서 고려 승려 全息庵이 쓴 知台州 陳著(1214-1297)¹⁸ 등의 기록은 양국 교류의 단면과 상황을 알려준다. 즉 양국이 문화수용에 있어 일방적이 아닌 쌍방으로 교류가 이루어졌고, 나아가 고려의 문화 수준이 결코 중국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송문화의 유입에 있어서도 선별적으로 도입하였던 고려시대의 전체적인 경향과도 부합된다. 그런데 기록에 등장하는 남송의 사찰은 모두 연경원과 연경사인데, 이는 아마도 같은 절로 보이며, 절강성 寧波府에 있던 사찰로 당시 고려와 남송 교류의 창구 역할을 했음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려 중기에는 현전하는 실존 유물이 적어 증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절강성과 복건성 중심의 송대 불상양식이 수용되고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고려 후기까지 계승됨을 다음 장에서 살펴볼 變形通肩式과 通肩式의 불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高麗 後期 라마교 미술의 수용 배경

高麗 後期는 몽고족이 세운 元과의 교섭에 따라 각 방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원 황실에서 신봉되던 티벳계 라마교의 전래는 고려 후기의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兩國關係에 따라 원의 국교가 된 라마교와 원의 불교문화가 고려에 유입되었다는 것은 문헌기록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유입 배경과 과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요인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라마승려들의 공식적인 입국이다. 吐蕃僧으로 불려지는 티벳계 라마승려들의 공식적인 고려 왕래는 주로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에 걸쳐 5차례나 이루어졌다.¹⁹ 이들

院圖照法師塔銘」, 張東翼, 앞의 책, pp. 434-436.

¹⁵ 張東翼, 앞의 책, pp. 436-438.

¹⁶ 張東翼, 앞의 책, pp. 438-439.

¹⁷ 張東翼, 앞의 책, p. 441.

¹⁸ 陳著, 『本堂集』 9, 「靈濟庵會高麗僧全息庵八句遺之」, 張東翼, 앞의 책, p. 428.

¹⁹ 라마승려들의 고려 입국은 1271년, 『高麗史』世家 卷27, 元宗 12年 8月 丁巳條; 1294년, 『高麗史』世家 卷31, 忠烈王 20年 7月 乙亥條; 1298년, 『高麗史』世家 卷33, 忠烈王 24年 庚寅條; 1298년, 『高麗史節要』卷22, 忠烈王 24年 등이다. 이외에 『高麗史』列傳 卷2, 后妃2, 2年條와 『高麗史』世家 卷31, 忠烈王 24年 乙卯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表 1 高麗에 시집온 元의 공주들

高麗王	元 公主	결혼년대	元 公主의 父 身分
忠烈王	齊國大長公主	1274년	世祖
忠宣王	薊國大長公主	1296년	甘麻剌 晉王
忠肅王	濼國長公主	1316년	先帖木兒 營王
	曹國長公主		阿木哥 魏王
	慶華公主		
忠惠王	德寧公主	1330년	焦八 鎮西武靖王
恭愍王	魯國大長公主(仁德太后)	1349년	魏王

은 주로 원의 황실이나 宣政院의 帝師에 의해 보내졌으며 때로는 고려 왕실이 티베트의 라마 승들을 직접 초청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라마교의 수용에 왕실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라마교 승려의 공식적인 고려 입국은 충선왕대 이후에는 정사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두 번째는 왕의 正妃는 元 皇室의 공주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려 왕실에 시집온 원의 공주들과, 고려의 왕세자로서 質者로 元에 가 생활하다 돌아온 고려의 왕들을 들 수 있다. 고려에 시집온 원의 공주들은 모두 7명인데(〈表 1〉 참조), 충렬왕비인 齊國大長公主와 1296년 세자비가 되어 1298년 고려에 온 충선왕비 薊國大長公主(寶塔實憐公主)를 비롯한 원의 공주들은 이미 원의 황실에 보편화되어 유행했던 라마교에 익숙해 있었으며, 또한 그녀들은 고려 왕실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였다.²⁰

고려 후기 고려 왕실과 원 황실과의 혼인은 양방으로 이루어져 忠宣王妃인 順妃 許氏의 셋째 딸은 원에 가서 伯顏忽篤 皇后가 되었으며,²¹ 충렬왕의 맏아들 江陽公 滋의 아들 王禩完澤禿는 계국대장공주의 오빠인 元 梁王의 딸과 결혼하여 그 손자 禿朶不花를 고려의 왕으로 추대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덕녕공주와 충목왕 사이에서 난 딸 長寧공주는 元 魯王에게

²⁰ 몽고와의 강화가 이루어진 후 고려 후기 왕실은 1274년 계국대장공주와의 혼인을 계기로 권위를 높이고 정치적 안정도 이루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왕권의 강화는 때때로 당시 원에서 온 공주들의 횡포로 이어졌고 심지어 왕에게까지 미치기도 하였다. 계국대장공주가 죽은 후 그 원인을 1297년의 宮人 無比에게 물어 숙청한 것이라든지, 忠宣王의 趙妃 총애로 빚어진 사건 등은 그 한 예일 것이다.

²¹ 원 무종의 아들인 明宗妃 不顏忽都皇后로 추정하고 있다. 張東翼, 『高麗後期外交史研究』(一潮閣, 1994), p. 181.

시집을 가기도 하는 등 두 나라 사이 왕실 간의 혼인은 매우 빈번하였고 이들이 라마교 수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짐작된다.

세 번째는 元의 佛敎文化 受容에 관한 보다 직접적인 요인으로, 고려에 있는 사찰에 대한 원 황실의 佛事를 들 수 있다. 원 황실의 불사가 주로 이루어진 절은 금강산에 위치한 表訓寺와 長安寺, 그리고 황해도 海州 神光寺 등을 들 수 있으며, 고려 출신의 관리인 資政院使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유행처럼 이어지기도 하였다(表 2). 그 중에서도 장안사와 신광사에 대해서는 좀더 풍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원 황실과 고려 내의 큰 사원들과

表 2 元에서의 고려 사찰에 대한 佛事 목록

	年代	發願者	寺刹 및 遺物	內容	典據
1	1338	元 順帝	表訓寺	碑. 승려 만명에게 공양. 元 梁載「常住分糧記」	『稼亭集』卷6 「金剛山 長安寺 重興碑」 『新增東國輿地勝覽』 제47권 회양도호부
2	1337 (또는 1341, 1342)	元 順帝	神光寺		『新增東國輿地勝覽』卷43 海州牧. 危素「海州神光寺碑文」
3	1343-1345	奇皇后	長安寺	正殿-毘盧遮那, 盧舍那, 釋迦牟尼, 53佛, 萬五千佛 禪室-千手觀音, 文殊, 普賢, 彌勒, 地藏菩薩 海藏宮-阿彌陀53佛, 法起菩薩, 翊盧舍那 藏經 4부(하나는 元皇后가 하사한 銀寫經). 華嚴經 3권, 法華經 8권	『稼亭集』卷3 「荆置金剛都山寺記」: 卷2「金剛山普賢菴法會記」: 卷6「金剛山長安寺重興碑」 『東文選』卷84 「送僧禪智遊金剛山序」
4	1337-1343	元 資政院使 高龍鳳	萬德山 普光寺	佛殿, 僧堂, 賓軒, 丈室, 海藏	『新增東國輿地勝覽』卷3 全州府 佛宇條: 『稼亭集』卷3, 「重興大華嚴普光寺記」
5	1348	元 資政院使 高龍鳳	敬天寺塔		初層塔身部 造塔文 『新增東國輿地勝覽』卷13 豐德郡條
6	1352	元 資政院使 高龍寶	表訓寺 香琿		發願文

의 밀접한 관련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²²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 황실에서 고려에 불사를 행한 시기는 모두 元 順帝에 해당되는데, 이는 순제가 고려의 大靑島로 유배를 왔었고, 그의妃였던 기황후가 고려 공녀 출신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表訓寺, 長安寺 등 金剛山에 위치한 사찰에 대한 佛事의 근저에는 금강산 숭배 사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왕실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금강산을 찾아가고 예배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던 고려에서의 금강산 숭배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신앙은 14세기 중엽경 절정에 달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강산 내강리 만폭동에서 1344년의 造成銘이 있는 佛像을 비롯하여 많은 양이 출토된 사실도 금강산 신앙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²³

원대 불교문화의 유입과 관련하여 마지막 요인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元 工匠의 入麗이다. 원의 工匠들이 고려에 온 가장 이른 기록은 1277년(忠烈王 3) 齊國大長公主가 겨울 궁실을 짓기 위해 초청한 元 木匠의 도래이다.²⁴ 이외에도 궁전을 짓기 위해 탐라에 와 있던 목공장 元世를 비롯한 11명의 기록도 보인다.²⁵

원의 장인들이 고려에 와서 직접 불사를 지휘했던 구체적인 기록도 눈에 띈다. 長安寺의 法堂과 佛殿, 佛像은 중국의 기술자가 제작하였다고 한다.²⁶ 忠穆王과 모후 德寧公主는 금강산에서 鑄鐘을 마치고 돌아가던 元 匠人을 불러 1346년(至正 6) 演福寺 銅鐘을 주조하게 하였는데, 동종에는 원 장인들의 출신지역과 이름들이 적혀 있어 더욱 흥미롭다.²⁷ 鑄鐘

22 신광사의 중창시기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3 海州牧에는 1342년에, 危素의 「海州神光寺碑文」에는 1337년(忠肅王 復位 3, 至元 3)과 1341년(忠惠王 復位 2, 至正 元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문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23 1974년 9월 강원도 금강산 내강리 만폭동 금강대에서 다수의 불상들이 발견되었다. 불상 가운데는 1344년의 조성년대를 가진 불상도 있고 1379년의 명문이 있는 佛龕도 발견되었다. 그 중에는 기존의 고려 후기 불교 조각의 형식이나 양식과는 다른 예도 있고 양식도 다양한 편이어서 발견된 경위라든가 불상 전체에 대한 목록이 나와야지만 그 성격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출토된 불상의 도판은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圖 354, 359, 360, 361, 362, 367-375 참조.

24 목장 초빙의 구체적인 목적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이미 제국대장공주는 고려에 온 이후인 1276년 겨울 궁실을 짓기 위해 원에 공장을 청하였던 점, 그리고 木匠 提領 盧仁秀가 三哥를 통하여 궁실의 공사가 중지되었는데도 돌려보내 주지 않음을告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궁실의 공사를 위해 불러왔던 것으로 짐작된다. 『高麗史』 卷第89, 列傳 第2, 后妃 2: 『高麗史節要』 卷第19, 忠烈王 3.

25 『高麗史』 世家 卷第41, 恭愍王 4, 己酉, 18年 9月 辛酉.

26 『新增東國輿地僧覽』 제47卷, 회양도호부.

27 언복사 동종에 대하여는 李穀, 『稼亭集』 卷6 「演福寺新鑄鐘銘并序」; Yang Han-sung, Seo Kyung-bo, Charles Goodwin, *Yonboks Bell in Kaesong* (Korea: PoChin Chai Ltd, Seoul, 1992) 참조.

주조에 참여한 원의 工匠들에 대해서는 종에 새겨진 “……江浙行中書省 實陽縣 赤松匠手 提領何德貴 提領何邦達 提領趙明遠等一千人上高把頭牛德張玉”으로 미루어 절강성 출신의 何德貴·何邦達·趙明遠들이 선발, 파견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문구 중의 赤松匠手 提領은 장인을 거느리는 우두머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명문의 첫머리에는 연복사종 이전에 만들어졌던 금강산 鑄鐘이 천자의 명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면서 금강산 근처의 기근에 시달린 여러 군 백성들이 서로 다투어 이곳에 와서 일을 하였다고 하여 근처 백성들의 생활고 해소에도 기여하였음을 알리고 있다.²⁸

원대 경기도 開豐郡 光德面 中蓮里에 있던 1346년에 조성된 경천사탑도 姜融이 원에서 工匠을 뽑아다가 만든 탑으로 알려져 있으며,²⁹ 祭壽가 지은 福靈寺 16羅漢像,³⁰ 1342년 신광사 불사에 태감 宋骨兒가 원의 공장 37명을 데려온 기록 등은 고려 후기에 원 공장들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의미한다. 개성 성균관에도 “土壘의 五聖과 十哲은 元인이 제작하였다”³¹라는 기록이 있어 원대 장인들에 의한 고려 내의 불사는 불교미술에만 국한되지 않았음도 알 수 있다.

이상의 기록을 통하여 볼 때 고려는 원과의 교섭 이후 불교는 물론 그 문화도 앞 시기와는 다른 일면을 가지고 있었으며, 13세기 후반부터 원이 망하는 14세기 중엽까지 승려나 장인들의 도래, 그리고 불사 등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기록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들이 고려를 다녀갔을 것이다. 이들은 수도나 금강산 등의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한 전국적인 지역에서 활약했을 것이며 원대의 불상형식이나 양식, 제작기술이 고려에 전해져 고려 후기 불상양식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나아가 불상만이 아니라 궁전과 사찰건축, 탑, 공예 등 여러 장르의 불교미술 등 다각적인 면에서의 영향관계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²⁸ “天子之命以金幣來鑄鐘于金剛山時旁山諸郡饑其民爭趨工得食以活鐘成公將歸朝.”

²⁹ 『新增東國輿地勝覽』卷13 豐德郡條.

³⁰ 祭壽가 지은 『遊松都錄』의 「福靈寺 羅漢像」에는 “복령사 불전에 이르니 16나한이 있었는데 이는 元人の 所塑라 하며 精巧無比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兪好仁, 『遊松都錄』: 같은 내용이 『續東文選』卷21에도 수록되어 있다.

³¹ 許興植, 「조선전기 기행문으로 본 개경의 유적화 과정」, 『高麗時代研究 II』(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7), p. 136.



1



2



3



4

삼도 1
高麗 後期 菩薩像의 類型
1. 變形通肩式
2. 通肩式
3. 天衣式
4. 喇嘛式

III. 高麗 後期 菩薩像의 類型과 特徵

고려 후기의 보살상들은 다양한 요소들을 수용하면서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그 요소들은 고려 중기로부터 계승되는 보다 전통적인 요소들과 원과의 강화 이후 양국 간의 교류에 편승하여 들어오는 외래요소인 라마 불상양식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 보살상들을 착의법이나 옷주름, 영락의 표현에 따라 變形通肩式, 通肩式, 天衣式, 그리고 喇嘛式 등 네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삼도 1.³²

도 1 銅造菩薩坐像, 高麗 1330년, 일본 대마도 觀音寺



1. 變形通肩式 보살상

고려 후기 변형통견식 보살상은 1330년 觀音寺 銅造菩薩坐像도 1, 일본 佐賀縣에 있는 長得寺도 2, 普明寺 銅造菩薩坐像도 3들이 있으며 이외에도 가장 많은 작품이 남아 있는 고려 후기 보살상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 보살상의 가장 큰 특징은 오른쪽 팔에 偏衫을 걸쳐고 그 위에 편단우견의 대의를 양어깨를 감싸듯 입은 모습인데, 오른쪽의 대의 자락은 어깨에서 반달형으로 걸쳐지고 그 한 자락이 겨드랑이로 돌아 다시 왼쪽 어깨 위로 걸쳐지는 형식이다. 즉 이 착의법의 특징은 오른쪽 어깨 위의 대의가 반달형을 이루며 왼쪽 어깨로 돌아가는데 왼쪽 팔꿈치에서 깊은 홈의 오메가형 주름을 만들면서 어깨 뒤로 길게 흘러내린 것처럼 표현된다. 노출된 가슴의 아랫부분에는 수평으로 가로지른 형상의 승각기와 이를 맨 금구장식, 그리고 군의의 띠매듭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의 형식은 고려불화의 불상에도 보이는데 색채가 칠해져 있어 좀더 분명하게 편삼과 대의를 구분할 수 있다.³³ 이 착의

³² 고려 후기 보살상의 유형 가운데 변형통견식과 통견식의 시원 그리고 고려 중기에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면상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鄭恩雨, 『高麗後期 佛教彫刻 研究』(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p. 56-64 참조.

법은 중국의 경우 遼代인 11-12세기경에 보편적으로 성행하였으며 고려에는 중기에 수용되어 이미 정착한 요소가 후기로 계승된 것이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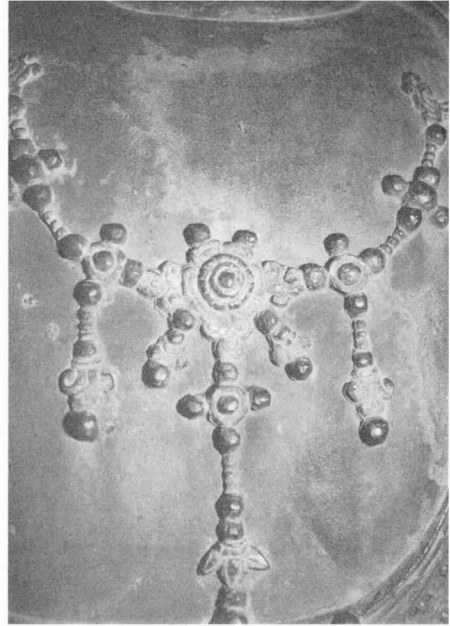
기록을 통해 조성년대를 알 수 있는 보살상으로는 일본 對馬島 觀音寺 소장의 銅造菩薩坐像을 들 수 있다^{도 1}. 이 상은 상의 내부에서 나온 腹藏 발원문을 통하여 원래 충청남도 瑞山 浮石寺에 봉안되어 있었고, 1330년(天曆 3)이라는 제작년대가 밝혀졌으며 戒眞을 비롯한 30여 명의 단월들이 참여하여 조성한 고려 후기 조각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³⁵ 관음사 보살상은 전체적으로 투박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 얼굴은 원형에 가까운 복스럽고 온화한 인상으로 긴장이 풀린 듯하고 몸에 비해 얼굴은 크고 무릎은 좁은 편이다. 머리에는 끝부분을 묶은 寶髻가 높게 솟아 있고, 한 묶음의 머리카락이 어깨로 내려와 세 개의 원으로 겹쳐지고 다시 다섯 갈래로 나뉘어 어깨 위에 늘어졌다. 가슴에는 중간의 긴 장식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늘어진 목걸이가 있고 이 목걸이와 같은 형식의 영락이 무릎에 놓여 있다. 가슴에는 수평으로 가로지른 승각기와 이를 묶는 금구장식이 있으며 그 밑으로 가지런히 묶어 늘어뜨린 나비모양의 띠매듭, 그리고 왼쪽의 소매자락이 무릎 위에 늘어져 있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일본 佐賀縣의 長得寺 銅造菩薩坐像^{도 2}과 佐賀縣立美術館에 기탁된 普明寺 銅造菩薩坐像^{도 3}도 같은 변형통견식이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있고 불신은 정교한 조각기법과 잘 조화되어 세련된 느낌을 주며, 세부적인 묘사가 정확한 점에서 좀더 완성도가 높은 상들이다. 두 보살상의 전체적인 형식은 관음사 보살상과 매우 비슷한데 그 중 목걸이의 형상을 통하여 조성시기 및 지역성 등에 대하여 접근해 보고자 한다. 장독사상은 가운데 동심원이 있는 둥근 화문을 중심으로 그 양 옆에 크고 작은 용기된 원형 장식들이 있으며, 목걸이 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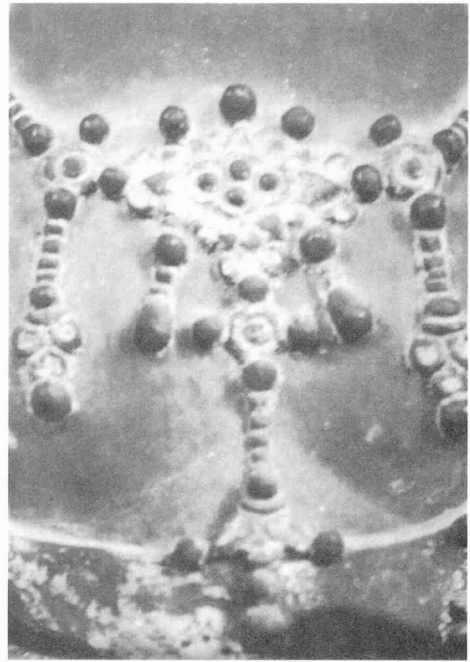
³³ 菊竹淳一·鄭于澤, 『高麗時代の佛畫』(시공사, 1996), pp. 36-40, 圖 9-11 참조.

³⁴ 변형통견식으로 옷을 입은 불상들은 이미 삼국시대 7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나타나는 중국식 착의법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조성되는 변형통견식의 불상들은 착의법은 물론 승각기와 균의를 입은 모습 등에서 이전 시기의 불상들과 구별되며, 특히 중국 요대의 11-12세기경에 보편적으로 성행하는 새로운 형식의 불상들이 유입되면서 고려 중기부터 조성되는 형식이다. 편단우견에 속에 편삼을 입은 형식에서는 변형 편단우견이지만 통견으로 옷을 입은 듯이 보이기 때문에 편이상 변형통견식으로 명칭하였다. 변형통견식의 착의를 한 요대의 불상에 대해서는 鄭恩雨, 『遼代 佛像彫刻의 研究(Ⅰ)』(1999), pp. 106-115 하화업사 여래상 유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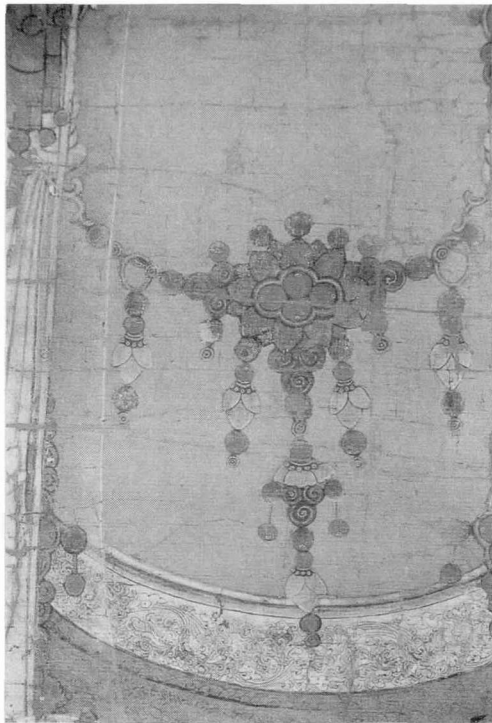
³⁵ “南瞻部洲高麗國瑞州地 浮石寺堂主觀音鑄成結緣文 盖聞諸佛菩薩發大誓願而度諸衆生也 雖無彼平等以視之然佛言無因衆生難化依此金口所說弟子等同發大願鑄成觀音一尊安于 浮石寺永充供養者也所以現世消災致福後世同生安養而願也 天曆三年二月日誌.”



도 2 銅造菩薩坐像, 高麗, 일본 佐賀縣 長得寺



도 3 銅造菩薩坐像, 高麗, 일본 佐賀縣 普明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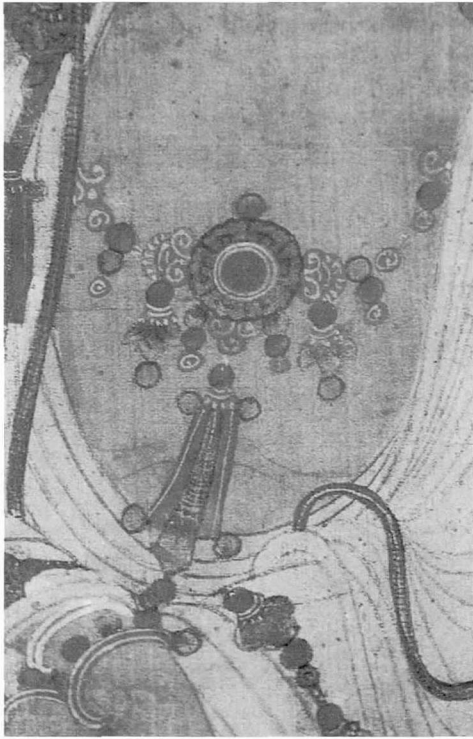


도 4 〈水月觀音圖〉부분, 高麗 1310년, 일본 鏡神寺

에 달린 다섯 줄 장식의 가운데 줄은 승각기 부분까지 길게 내려와 있고 양 옆의 두 줄은 짧게 늘어진 좌우대칭형으로 가장자리에는 작은 점들이 돌출된 작은 원형의 장식들이 있다. 같은 형상의 목걸이가 역시 무릎에도 놓여 있다. 普明寺 銅造菩薩坐像의 목걸이는 능화형 화문과 등글고 뽀족한 연판과 장식술, 그리고 크고 작은 구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장식들은 치밀한 구성방법과 세밀하고 도드라지게 표현한 다양한 구슬들이 어우러져 회화성마저 느끼게 한다. 이 두 가지 형상의 목걸이는 고려 후기 보살상이 아니라 불화에 가장 많이 표현되는 형식이다. 즉 일본 鏡神社 소장의 1310년 〈수월관음도〉의 장식구도 4는 보명사상의 형상도 3과 상통하고, 도키치현의 반나지 〈아미타팔대보살도〉의 보살도 5이

나 1320년 〈松尾寺 阿彌陀八大菩薩圖〉의 대세지보살상의 영락은 장득사상의 형상과 상통한다.³⁶ 제작시기에 따른 형상의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보명사나 장득사의 조성시기 추측도 가능하다. 1333년명 금동관음·세지보살입상도 7이나, 1330년의 관음사 보살상은 보명사나 장득사 보살상과 기본적인 형상이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비교해보면 연꽃잎이 간략화되고 밑에 달린 수식도 투박하고 단순화되는 등 정교성에서 떨어져 시기적인 격차가 뚜렷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특히 王淑妃 발원의 1310년 〈수월관음도〉와 치밀한 구성력과 정교성에서 똑같은 점은 이 상의 제작시기를 14세기 초엽 이전으로 올려볼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또한 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입증시켜준다. 이렇게 당시 유행했던 불화와의 유사한 조형성과 표현수법은 그 불상들이 시대적인 양식 경향에 의거

³⁶ 송미사 보살도는 菊竹淳一·鄭于澤, 앞의 책, 圖 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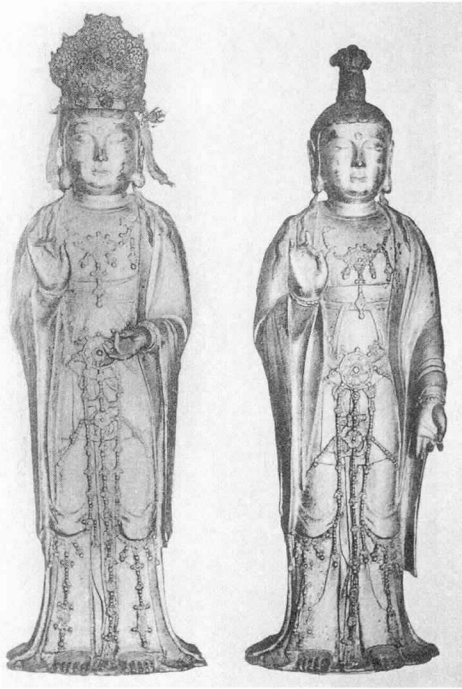
도 5 《阿彌陀八大菩薩圖》부분, 고려, 일본 도키치현 만나지



도 6 石刻觀音菩薩坐像, 941년, 永州 儀鳳寺

하여 조성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변형통견식의 세 구의 보살상은 착의법이나 승각기와 금구장식, 군의 매듭띠 등에서 공통점을 보이며, 소매자락이 한 자락 왼쪽 무릎에 올려 놓여 있는 점이라는 지 높이 솟은 보계와 보발의 형상, 가르마를 갈라 사선으로 선각한 뒷머리 등에서도 예외는 있지만 비슷하다. 이들 보살상의 특징 중 하나인 승각기를 묶는 금구장식은 다른 유형보다는 변형통견식의 보살상에 주로 표현되는데, 마름모꼴에 작은 주옥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금구장식의 형상은 중국에서는 명문상으로는 941년(永隆 3) 永州 儀鳳寺 石刻 觀音菩薩坐像에서 처음 보이며도⁶, 그 후 요, 송, 금을 거쳐 京都 二尊院에 있는 원대의 석가도를 비롯하여 명대에 이르기까지 불화나 불상에 자주 표현된다.³⁷ 고려의 경우에는 1199년의 안동 鳳停寺 목조보살좌상이나¹³ 일본 이키섬의 금동보살좌상과 같이 고려 중기의 보살상에 처음 등장하며 고려 후기에 이르러 변형통견식 보살상에 주로 표현되는 요소이



도 7 金銅觀音·勢至菩薩立像, 高麗 1333년,
국립중앙박물관



도 8 金銅菩薩坐像, 高麗, 호림박물관

다.³⁸ 보계와 보발의 표현은 다음에 살펴볼 통견식 보살상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좀더 살펴보겠다.

2. 通肩式 보살상

통견식 보살상은 두 어깨를 덮은 대의를 입고 5줄의 목걸이를 목과 무릎에 걸치며 때로는 온 몸에 번잡한 영락을 걸친 점이 특징이며, 특히 이 상들은 경상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식의 지역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의 경우 남송대에 통견

³⁷ 奈良國立博物館, 『東アジアの佛たち』(1996), 圖 140 참조.

³⁸ 山口縣立美術館 編, 『高麗·李朝의 佛敎美術展』(1997), 圖 50, 5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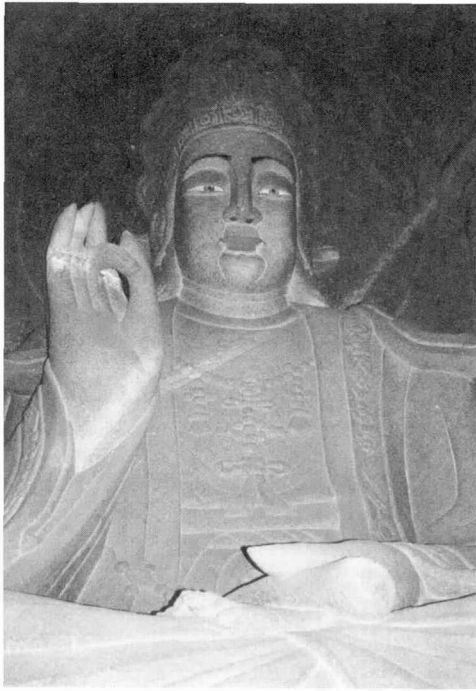


도 9 銅造菩薩
坐像, 고려, 일
본 長崎縣 多
久頭魂神社

식 착의법이 유행하며 세부적인 표현에서도 남송대 보살상과 유관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남송을 통해 유입된 새로운 유형이 고려 후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유형의 상으로 우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협시 金銅菩薩立像 두 구이다^{도 7}. 이 보살상들은 복장물 가운데 “至順四年九月二十日”이라는 문구가 있어 1333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존상태도 매우 좋은 편이다. 두 보살상은 지물이 없고 보관에도 특정한 표식이 없어 정확한 尊名은 알 수 없으나 관음과 세지보살상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 보살상들은 통견의 옷을 입은 원통형의 불신에 장식적인 영락과 몇 개의 간략한 옷주름만으로 밋밋하게 처리한 뒷면 등이 특징이다. 그리고 보계의 윗부분은 머리카락으로 묶어 부채살처럼 펼쳤고 이마 위의 머리카락은 머릿골 하나 하나를 정교하게 선각한 점과 머리에서 내려오는 긴 한 가닥의 머리카락이 어깨에서 세 개의 원형으로 겹쳐지고 다시 5갈래로 나뉘면서 아래로 흘러내려진 점은 앞서 설명한 변형통견식 보살상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이다.

이 유형의 보살상은 입상보다는 좌상에서 그 특징이 더욱 뚜렷하다. 호림박물관과 일본 나가사키(長崎) 多久頭魂神社의 銅造菩薩坐像은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도 8, 9}. 가슴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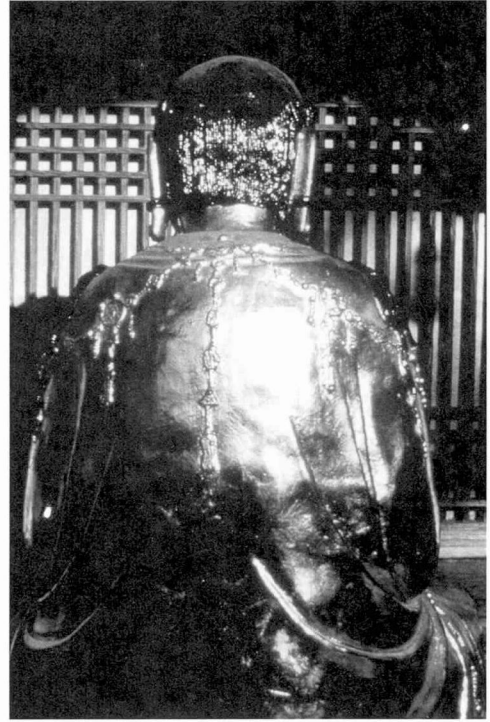


도 10 石造菩薩坐像, 南宋 1216년, 천주 南天禪寺



도 11 木造菩薩坐像, 南宋 1255년 이전,
일본 京都 泉涌寺

수평상의 승각기와 옷깃이 수직으로 내려와 가슴 부분이 직사각형을 이루며, 소매에서 늘어진 옷자락이 양 무릎에서 대칭을 이루면서 늘어진 점도 특징적이다. 목에는 가운데 화문이 있는 5줄로 늘어진 긴 목걸이를 걸쳤고 같은 형상의 영락이 무릎에도 놓여 있으며 무릎에는 3개로 이루어진 횡선의 옷주름이 있다. 뒷면인 등쪽은 장신구를 제외하면 몸 양 옆으로 몇 개의 옷주름만이 선각되어 밋밋하게 표현되었다. 특히 이 유형의 특징 중 하나인 뒷 머리카락의 형상은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횡으로 5개의 단을 이루었으며 어깨 위의 보발은 3개의 원형과 다섯 가닥으로 늘어져 있다. 이와 같은 통견의라든지 앞가슴이 직사각형을 이루는 모습, 그리고 옷깃을 따라 흘러내린 영락 등은 1216년에 조성된 천주 南天禪寺의 石造菩薩坐像처럼 남송대 보살상의 형상과 유사하다도 10. 더욱이 가운데 화문을 중심으로 3개의 주옥과 5줄의 수식이 늘어진 목걸이의 표현은 일본 京都 泉涌寺에 있는 1255년 남송에서 일본으로 가져온 남송대 보살상도 11에서도 보이는 특징이다. 그리고 일본 愛知縣에 있는 고려 후기인 14세기 養壽寺 地藏菩薩圖의 목걸이와도 비교되기 때문에 조성시기도 근접할 것으



도 12 乾漆觀音菩薩坐像, 고려, 경북 영덕군 莊陸寺

로 생각된다.³⁹

이외에도 “正德十一年丙子四月日改金 ……”의 기록으로 1516년에 개금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상북도 尙州 大乘寺의 금동보살좌상도 같은 계열의 작품으로 분류된다.⁴⁰ 이와 더불어 주목되는 작품이 경상북도 영덕 莊陸寺의 乾漆觀音菩薩坐像이다 도 12. 이 보살상은 북장에서 1395년(洪武 28)에 쓴 「佛腹藏同發願文」이 나와 1395년에 조성된 조선 초기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⁴¹ 그러나 실제 보살상의 조성시기와는 다르다고 생각되므로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상에서 나온 「불복장동발원문」은 불복장을 발원한다는 것이며 여기서의 불복장은

³⁹ 菊竹淳一·鄭于澤, 앞의 책, 圖 107.

⁴⁰ 黃壽永 외, 『韓國佛像三百選』(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p. 292 참조.

⁴¹ 鄭永鎬, 「莊陸寺菩薩坐像과 그 腹藏發願文」, 『考古美術』 128(1975.12), pp. 2-4.

불상에 넣은 복장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 발원문은 실제의 불상조성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고려 후기 불상의 내부에서 발견되는 발원문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一般發願文과 佛腹藏發願文이다.⁴² 발원문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불상조성 발원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복장발원문은 대체로 복장을 넣으면서 쓰는 발원문으로 고려 후기에 이르러 복장을 넣는 의식이 매우 특별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불상 자체보다는 그 안에 넣는 納入品을 통하여 생명력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 복장물에 대한 과도한 신앙 때문에 경전은 물론 각종 복식이나 직물은 물론 곡식, 木盒까지 넣게 된 것이다. 현재 원래의 복장물이 완전하게 남아 있는 고려 후기의 작품으로는 1346년에 조성된 文殊寺 阿彌陀如來坐像인데 그 안에서는 발원문과 미타복장발원문이 함께 나왔을 뿐만 아니라 미타복장발원문에는 몇 백명의 단원들이 등장하며 함께 나온 복장물 또한 많은 경전과 더불어 옷, 목합 등 대량의 납입품이 나온 것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개금을 하거나 중수시에도 개금발원문이나 복장납입물을 다시 넣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발원문의 내용과 구성인데, 장육사 보살상은 정병을 든 관음보살이며 이는 발원문에 쓰여진 “永樂五年丁亥六月十一日 長寺禪堂觀音改金施主 白瑱上金僧向根”이라는 개금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발원문의 내용을 보면 발원자 白瑱은 ‘親見彌勒’을 기원하고 있다.⁴³ 즉 백진 자신은 미륵을 원하면서 관음보살을 조성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발원문의 구성에 있어서도 앞에는 ‘불복장동발원문’을 쓰고 끝부분에는 “永樂五年丁亥六月十一日 長寺禪堂觀音改金施主 白瑱上金僧向根”이라 하여 1407년(永樂 5 丁亥, 太宗 7)에 했던 개금 사실을 적고 있다. 즉 복장발원문과 개금의 시주자는 같은 백진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1395년 발원문이 쓰여진 12년 뒤인 1407년에 개금을 하면서 복장발원문의 끝에 개금 사실을 적었던 것이다. 더욱이 보살상을 조성한 지 12년만에 또 다시 개금을 한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중의 하나이다.

다음은 백진이 복장물과 더불어 高價인 乾漆佛像을 조성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백진에 대해서는 1389년에 權近(1352-1409)이 쓴 글에 자세하게 나와

42 姜仁求, 「瑞山文殊寺 金銅如來坐像腹藏遺物」, 『美術資料』 18(1975.12), pp. 1-18.

43 “佛腹藏同發願文惟願弟子世生生生修善家吳遇明師童真出家搖心永斷睡眠輕微於此法門信心堅固戒行清淨進道無魔不過七日早早發明廣度衆生親見彌勒自他一時同成佛道者主上殿下萬萬歲 顯妃殿下壽齊年 世子殿下壽千秋諸王□室各保天年兩府百官福壽無疆于戈永息四海彼安各父母離苦趣生淨土立願 洪武二十八年九月初吉。” 功德主 六閭居士海栓俗號 前判事白瑱 永樂五年丁亥六月十一日□長寺禪堂觀音改金施主 白瑱上金僧向根.

있다.⁴⁴ 그는 1383년 왜구의 침략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고향인 영해를 떠나 사불산에서 어머니를 잃은 후 그 명복을 빌고자 1385-1387년 사이에 미륵암을 중창하였다고 한다. 백진이 장육사 보살상을 조성했다는 1395년 이전에 이미 재산을 播蕩하였고 미륵암도 오로지 정성과 여러 스님의 도움으로 중창하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백진은 재산을 잃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불교에의 귀의와 불사로서 달랬던 것으로 생각되며 발원문의 내용 중에 ‘童眞出家’라는 구절에서 혹시 출가를 결심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더욱이 “연해지방 중에서 가장 궁벽하고 오랫동안 왜적의 노략질이 심해 촌락이 빈터가 되었다”는 1393년 당시 영덕에 유배와 있던 권근의 글에서도 궁핍했던 이곳의 경제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⁴⁵

이상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발원문의 제목인 佛腹藏同發願文中에서 알 수 있듯이 복장을 넣으면서 쓴 복장발원문이며, 백진은 이미 봉안되어 있던 장육사 건칠보살좌상에 단지 복장만을 넣었고 그 인연으로 1407년에 개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가능성이 맞다면 보살상의 조성년대는 불복장을 넣은 1395년보다는 훨씬 앞설 것으로 생각된다.

발원문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장육사상의 제작시기 추정은 양식적인 분석을 통한 연대 추정과도 합치된다. 장육사 관음보살상은 통견의를 입고 화려한 영락을 걸쳤으며 소매자락이 양 무릎에 늘어져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화려하고 번잡할 정도로 온 몸에 걸쳐 있는 영락은 상의 뒷면까지도 늘어져 전체적으로 장식적이고 번잡한 느낌까지 준다. 둥근 화문을 중심으로 4개의 짧은 줄이 작게 붙어 있는 목걸이는 엄액의에 닿아 있고, 양측 법의 끝자락에서 내려오는 길고 화려한 영락은 배 부근의 둥근 花紋에 모아졌다가 다시 양 다리와 대좌에 드리워져 있다. 어깨부분에서 좌우로 갈라진 영락은 팔의 선을 따라 돌아가고, 또 한 줄은 등으로 돌아 세 줄로 늘어져 있다. 이러한 표현은 1199년의 봉정사 보살상과 세부의 표현에서 매우 비슷한데도¹³, 천의자락을 따라 내려오는 장육사 보살상과 달리 천의를 끼고 가슴 안쪽으로 내려오는 영락이나 팔과 뒷부분에는 영락이 없는 차이점은 있으나 통견의, 끝이 살짝 올라가는 엄액의와 군의 매듭띠, 엄액의까지 닿은 긴 목걸이, 영락의 표현, 양 무릎에 놓인 삼각꼴 소매자락 등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장육사 보살상은 인근지역에 있는 안동 봉정사 보살상의 특징을 계승한 작품으로 조성시기는 14세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유사성은 봉정사와 장육사가 위치한 안동과 영덕이 같은 경

⁴⁴ 권근, 『陽村集』 卷11, 「四佛山 彌勒庵 重創記」.

⁴⁵ 권근, 『陽村集』 卷12, 「盈德客舍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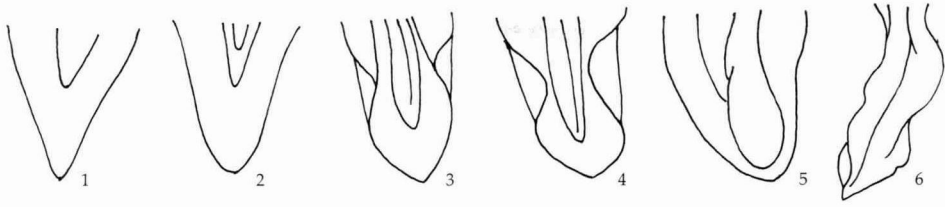
도 13 鳳停寺 木造菩薩坐像, 고려 1199년, 경북 안동

상북도에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지역이라는 점과도 관련될 것이다.

이상으로 변형통견식과 통견식 두 유형의 보살상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두 유형의 보살상들은 착의법, 금구장식이 달린 승각기와 군의의 띠매듭, 그리고 머리와 소매자락의 표현 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출토지나 소재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변형통견식은 충청도와 수도권인 개경지역 등 보다 넓은 지역에 소재한 반면, 통견식 보살상은 경상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두 유형의 소매자락의 표현을 보면, 변형통견식은 왼쪽 무릎에 하나만 표현하고 가운데에 끈은 주름을 중심으로 그 가장자리에 곡선의 주름을 잡은 나뭇잎 모양인데 반해 도 2, 삽도 2-3, 통견식 보살상은 양쪽 무릎에 모두 표현되며 중앙의 끈은 주름이 없이 양쪽으로 접혀져 있는 모습으로 정형화된다고 9, 삽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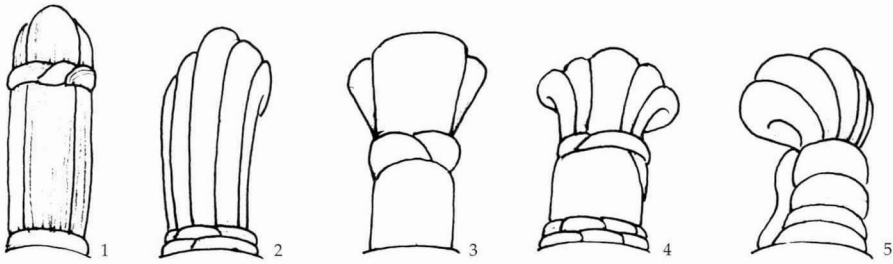
5. 소매자락의 표현이 시기에 따라 조금씩 형상을 달리하는 점도 흥미로운데, 일본 長崎縣의 金谷寺 보살상이나 경상북도 안동의 鳳停寺 보살좌상과 같이 고려 중기에는 뾰족한 삼각형을 이루는데 비해, 후기가 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뭇잎 모습으로 변하며, 고려 말기에 이르면 대마도의 금장사 불상처럼 작아지면서 펜촉 모양으로 형식화되어 간다 10, 삽도 2. 따라서 소매자락의 형상은 제작시기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반면 보계와 보발에서는 두 유형 간의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두 유형의 보계는 위로 묶어 피거나, 또는 기둥처럼 말아 올린 두 가지의 모습인데 11, 삽도 3. 이는 북송이나 남송대의 보살상과 비교되는 요소이다 12, 삽도 4. 그 중의 하나인 관음사 보살상의 보계를 보면 머리카락을 위로 틀어 올려 다섯 가닥으로 피었는데 이 형상은 송대 보살상과 끝부분의 형상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로 묶어 다섯 가닥으로 핀 모습에서 공통된다. 또 하나의 보계 모습은 보명사 보살상처럼 기둥처럼 말아 올린 다음 잡아 맨 형식인데 역시 대만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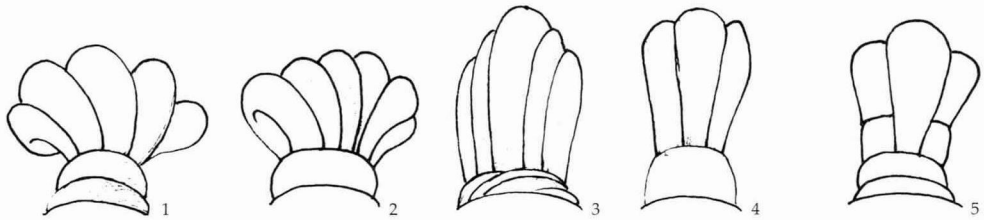
삽도 2 高麗 後期 佛像의 소매자락 표현

- | | |
|---------------|----------------------|
| 1. 金谷寺 金銅菩薩坐像 | 4. 觀音寺 金銅菩薩坐像, 1330년 |
| 2. 鳳停寺 木造菩薩坐像 | 5. 多久頭魂神社 銅造菩薩坐像 |
| 3. 長得寺 金銅菩薩坐像 | 6. 金藏寺 金銅如來坐像 |



삽도 3 高麗 後期 菩薩像의 寶髻

- | | |
|----------------------|-------------------|
| 1. 鳳停寺 木造菩薩坐像, 1199년 | 3. 多久頭魂神社 銅造菩薩坐像 |
| 2. 普明寺 金銅菩薩坐像 | 4. 金銅菩薩坐像, 1333년 |
| | 5. 國立中央博物館 銅造菩薩坐像 |



삽도 4 中國 宋代 菩薩像의 寶髻

- | | |
|-------------------------|---------------------|
| 1. 石造菩薩坐像, 甘肅省 馬梯寺石窟 7窟 | 3. 木造菩薩坐像, 台北, 藍田山房 |
| 2. 木造菩薩坐像, 台北 靜誦堂 | 4. 木造菩薩坐像, 영국 大英博物館 |
| | 5. 木造菩薩坐像, 神奈川縣 清雲寺 |

인 소장의 목조보살상처럼 송대 보살상의 보계 모습과 유사하다. 따라서 고려 후기 보살상의 보계는 이전의 북송이나 남송대의 형식이 고려로 전해져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수법으로 발전한 것이라 생각된다.



도 14 長得寺 銅造菩薩坐像의 寶髮

보발 역시 변형통견식과 통견식 보살상에서 공통적으로 보인다. 보발은 머리에서 한 가닥의 머리카락이 내려와 두, 세 개의 원형으로 겹쳐지고 다시 다섯 가닥의 머리카락으로 나뉘면서 어깨로 흘러내렸다도 14. 이러한 보발의 표현은 중국의 경우 운남성의 宋代 法華寺 石造菩薩像이나 일본 京都 泉涌寺에 있는 1255년 이전에 조성된 木造觀音菩薩坐像 등 남송대 보살상의 특징으로 그 영향관계를 짐작케 한다도 11.

3. 天衣式 보살상

천의식 보살상은 天衣가 가슴을 가로질러 걸쳐진 형상의 보살상들을 통칭한 것으로 이미 통일신라시대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려 후기 이러한 착의법은 특이하게도 輪王坐와 遊戲坐 자세의 보살상들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으며 대략 10여 구 정도가 남아 있다. 이 유형의 보살상은 고려 후기 보살상의 일반적인 통견식 여래형 법의가 아니고 전통적인 천의식 착의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도상이다. 윤왕좌와 유희좌 자세의 보살상들은 중국에서는 특히 宋代에 크게 유행하였고 水月觀音像의 자세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들은 14세기 불화에 보이는 베일을 걸친 수월관음과는 도상적으로 차이가 있고 尊銘이 명문으로 확인된 상도 없어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도 언급해보고자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金銅觀音菩薩坐像 도 15은 윤왕좌의 자세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화려한 보관과 영락,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돋보이는 秀作이다. 오른쪽 무릎을 세워 그 위에 팔을 걸치고 왼발은 거의 직각으로 구부러 몸쪽에 붙였으며 왼손은 밑으로 내려 바닥을 짚고 있는 매우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가늘고 긴 체구에 삼각꼴의 보관에 달린 긴 술이 어깨에 닿을 만큼 늘어졌고 큰 귀걸이와 화려한 영락, 턱이



도 15 金銅觀音菩薩坐像,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도 16 金銅菩薩坐像,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좁아지는 역삼각형의 얼굴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매우 이색적인 모습이다. 이 가운데 큰 귀걸이와 이국적인 얼굴 등은 뒤에 살펴볼 원대의 라마식 보살상과 관련지을 수 있는 새로운 요소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of 금동보살좌상은 도 16 다리를 밑으로 내린 유희좌의 자세로 앉아 있다. 세 줄의 목걸이와 양 무릎에만 있는 단순한 영락은 전통적인 요소이며, 뾰족한 코에 위로 치켜올려진 듯 표현된 눈에서 이국적인 느낌이 감도는 인상과 앙련과 복련이 대칭을 이루는 타원형의 대좌형식은 원의 불상양식 수용과 관련지을 수 있는 새로운 요소로 생각된다. 따라서 천의식 보살상의 착의법이나 윤왕좌, 유희좌의 자세는 송을 통해 유입되어 정착된 보다 전통적인 요소이지만 큰 귀걸이나 대좌 등은 라마식 보살상과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천의식 보살상들은 신체의 상당부분을 드러내고 있고 윤곽이 분명하며 자세도 자유롭고 이에 걸맞게 장식적이고 화려한 느낌을 주는 보살상들이다.

천의식 보살상 가운데는 같은 자세를 하였으면서도 지물이나 권속이 있는 보다 설명적



도 17
 金銅觀音菩薩坐
 像·善財童子像,
 여말선초,
 금강산 출토,
 평양 중앙역사
 박물관



도 18
 敬天寺址 10층
 석탑의 圓通會,
 고려 1348년,
 경기도 개풍군

인 작품들이 있다.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오른쪽 옆에 정병이 놓여 있고 마치 바위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며,⁴⁶ 중앙역사박물관 소장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옆에 선재동자가 있어 조각으로 만들어진 수월관음으로 추정된다^{도 17}. 수월관음상은 경천사지 10층석탑의 4층 탑신에 부조된 圓通會에서도 볼 수 있다^{도 18}. 원통회는 본존인 결가부



도 19
 浮彫水月觀音像, 北宋
 1078년경,
 陝西省 延安 萬佛洞

좌 자세의 관음보살상과 정병, 공양상, 새 한 마리, 무릎 꿇은 자세의 선재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즉 화면구성 요소인 암벽과 선재동자와 새, 도포를 걸친 용왕으로 생각되는 공양상 등은 당시 고려에서 정병에 버드나무 가지가 있는 도상을 수월관음으로 인식했듯이 수월관음의 일반적인 도상에 의거하여 제작된 것 같다. 새와 정병, 선재가 같이 등장하는 수월관음의 도상은 1078년경의 延安 萬佛洞의 벽에 있는 수월관음보살상과 같이 송에서 시작하여 도 19 1345년의 北京 居庸關의 서방 광목천왕의 가슴에 조각된 윤왕좌의 자세로 앉은 수월관음 등 원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유행하는 도상이다.⁴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의식 보살상은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지만 도상의 구성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는 수월관음으로 분류할 수 있는 도상도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⁸

⁴⁶ 호암미술관 편, 『大高麗國寶展』(1995), 圖 162 참조. 호암미술관 보살상과 비슷한 금동관음보살상이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에서도 출토되었으며, 개성의 墳墓에서 출토되었다는 국립중앙박물관의 純金護身佛觀音像도 2.7cm의 작은 상이지만 천의를 걸치고 오른쪽에 정병이 있으며 암벽 위에 걸터 앉은 모습에서 같은 도상으로 분류된다.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편 저,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V』(서울대학교출판부, 2000.4), 圖 374; 林進, 「新出の高麗水月觀音圖について」, 『佛教藝術』 123(1979.3), pp. 51-54, 圖 2.

⁴⁷ 楊伯達 主編, 『中國美術全集雕塑編 6』(人民美術出版社, 1988), 圖 15.

⁴⁸ 고려시대 수월관음의 도상과 신앙에 관하여는 黃金順, 「高麗水月觀音圖의 圖像과 信仰研究」(홍익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0.12) 참조.

고려 후기의 수월관음상의 조성은 『華嚴經』 入法界品이나 『法華經』 普門品과 관련되어 조성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또 다른 측면의 신앙 성격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몇 개 보인다. 그것은 福靈寺 수월관음상에 대한 기록으로 福靈寺 관음상에 기도하여 보감국사 混丘(1251-1322)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고,⁴⁹ 菊齊 權溥(1262-1346)의 묘지명에도 1262년 복령사 수월보살상에게 기도하여 공을 낳았다고⁵⁰ 하여 당시 복령사에는 수월관음으로 불리는 불상이 있었고 그 상은 아들을 점지하는 영험 있는 보살상으로 유명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던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즉위 초부터 복령사에 행차하고 있으며 1353년(恭愍王 2) 4월 乙卯부터는 복령사에 가서 아들을 낳을 것을 기도했다는 구체적인 기록들이 있어 이전부터 영험 있는 수월관음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⁵¹ 따라서 일반적인 관음신앙과 더불어 求子와 관련된 現世利益의인 신앙에 의한 수월관음상의 조성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⁵²

4. 喇嘛式 보살상

고려에 유입된 라마교 미술은 원을 통해 수용되었지만 매우 선별적으로 받아 들여 티벳이나 원대의 도상이나 양식과는 구별되는 점이 많으므로 이를 차별화한다는 의미에서 라마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라마식 보살상은 금강산에서 출토된 상들이 많은데 소형금동상들이 많고 그 발원자들이 귀족 이상의 인물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강산이나 수도 개경 지역에서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높아 중앙 양식의 일면도 짐작케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金銅觀音菩薩坐像은 금강산의 회양군 장연리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한다^{도 20}. 이와 비슷한 상이 파리 기메 박물관 소장의 金銅觀音菩薩坐像인데, 이 상은 1888년 한국에서 가져간 상으로 머리와 두 팔은 없어졌으나 크기가 같고 전체 또는 세부적

49 李齊賢, 「高麗國曹溪宗慈氏山瑩源寺寶鑑國師碑」, 『益齊集』 卷7.

50 “禱于福靈寺水月菩薩像以中統三年仲冬十有一日將哺而生公……” 李齊賢, 「文正權公墓誌銘」, 『益齊集』.

51 왕과 공주의 복령사 행차는 즉위 초부터 이어졌으며 공주가 보우를 만난 이후부터 보이지 않는다. 노국공주는 공민왕 13년(1364) 임신하여 만삭이 된 공민왕 14년(1365) 2월 甲辰에 죽었다. 『高麗史』 卷第38, 世家38, 恭愍王元年(1352) 윤3月 辛巳, 恭愍王 2년(1353) 4월 乙卯, 8月 戊子, 恭愍王 3년(1354) 3月 癸酉.

52 고려시대 관음의 授子신앙에 관하여는 林進, 「高麗時代の水月觀音圖について」, 『美術史』 102(日本美術史學會, 1977.3), p. 106 참조.



도 20 金銅觀音菩薩坐像, 고려, 강원도 惟陽郡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도 21 金銅觀音菩薩坐像, 고려, 프랑스 기메 박물관

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여 삼존불의 협시보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도 21). 이 두 보살상의 가슴에 있는 U형의 목걸이를 비롯하여 5葉 보관, 원반형의 귀걸이, 파상형을 이루며 어깨 위에 흘러내린 보발, 꽃잎 모양의 완혼, 그리고 머리핀처럼 머리를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리고 있는 모습 등은 1305년에 조성된 고궁박물관 소장의 원대 金銅菩薩坐像 같은 전형적인 라마교 보살상과 유사하다.⁵³ 결가부좌한 두 발이 모두 표현되었으며 엄지발가락을 앞으로 살짝 띄우면서 발가락을 모두 조각한 점도 1345년에 완성된 북경 居庸關의 浮彫如來坐像들처럼 라마교 불상에서는 보편화된 특징 중의 하나이다.⁵⁴ 그러나 배 부근에서 큰 화문을 중심으로 온 몸으로 퍼지는 영락, 그리고 三重으로 이루어진 연꽃대좌 등은 전통적인 요소이다. 뒷면

⁵³ 楊伯達 主編, 앞의 책, 圖 28.

⁵⁴ 鄭恩雨, 「高麗後期の 佛教彫刻 研究」, 『美術資料』 33(1983.12), p. 49, 圖 18.

의 천의 표현에서도 솔처럼 길게 드리워 양쪽으로 주름을 잡은 표현은 전통양식에서 언급한 바 있는 유희좌 자세의 금동보살좌상의 천의 뒷면과 매우 유사하다. 얼굴에서도 이 보살상은 부드러우면서도 신비함을 내포한 표정인데 이는 끝머무리가 완벽하여 마치 인형 같은 표정의 즉 생동감이 결여된 인상의 티벳이나 원대의 보살상들과는 느낌을 전혀 달리 한다도 25. 이 보살상과 비교되는 고려 후기의 작품으로는 경천사탑의 원통전의 주존불을 들 수 있으며 큰 귀걸이와 목걸이, 영락, 삼중의 연꽃대좌까지도 비슷하다도 18.

금강산 출토의 보살상과 같이 고려 후기의 라마식 보살상들은 라마교 보살상의 형식을 수용하면서도 곧 전통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고려적인 표현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마식 보살상이 전통적인 기존의 요소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특징은 다른 보살상에서도 보인다. 호림박물관의 금동대세지보살상은 오른손에 거의 직각으로 구부러진 연꽃가지나 원반형 귀걸이, 목걸이의 표현, 보발 등에서 라마교 보살상의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세 줄로 갈라지는 새로운 영락형식을 보인다도 22. 이러한 목걸이도 라마교 보살상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보편화된 특징으로 원대의 보살상으로는 1345년에 완성된 북경 거용관의 부조상에서 볼 수 있다.⁵⁵ 그러나 천의와 몸에 꼭끼는 군의의 윗단을 주름잡아 리본띠로 묶은 착의법은 일반적인 라마교 보살상에서는 없는 예외적인 표현이다. 군의의 윗단을 주름잡아 표현하는 착의법은 고려 후기에 처음 나타나는 것이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라마식 보살상과는 관련이 없는 1112년 경도박물관의 송대 보살상처럼 12-13세기 보살상에 많이 보이며 명대까지 계속 유행하는 형식이다.⁵⁶ 군의 윗단을 주름잡아 표현한 고려 후기의 상으로는 여래상이긴 하지만 1348년 경천사 불상들을 들 수 있다.⁵⁷

라마식 보살상에서 좀더 고려화된 특징을 보여주는 상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⁵⁸과 소장처 미상의 두 보살상이 있다도 23. 이 두 보살상은 왼손에 든 연봉오리를 비롯해서 보관이나 착의법에서 마치 쌍둥이처럼 닮은 상인데, U형의 목걸이라든지 대칭으로 이루어진 대좌는 라마식이면서도 평면적으로 변했으며 높이 솟은 보계라든지, 보관, 무릎에 붙어 있는 듯한 영락 등에서 전통요소를 계승하고 있는 변형통견식 보살상의 영락수법을 따르고 있다. 동국대박물관 소장의 金銅阿彌陀三尊佛像도 24 도 전형적인 전통양식의 작품이지만 관음과 지장 보살상의 광배를 테두리만으로 표현한 점은 역시 원대의 라마교 보살상의 한 요소에서 따왔

55 鄭恩雨, 앞의 논문(註32), 圖 111-1, 2 참조.

56 京都國立博物館 편, 『京都國立博物館藏品圖版目錄 彫刻·建築編』(1993), 圖 58-1, 2 참조.

57 鄭恩雨, 앞의 논문(註32), 圖 109 참조.

58 호암미술관 편, 앞의 책, 圖 161 참조.



도 22 金銅大勢至菩薩坐像, 고려, 호림박물관



도 23 金銅觀音菩薩坐像, 고려, 소장처 미상



도 24 金銅阿彌陀三尊佛像 중 관음보살상, 고려, 동국대박물관



도 25 金銅菩薩坐像, 元

음을 알 수 있다²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 후기 라마식 보살상들은 5엽 보관이나 머리를 뚫아 겹겹이 쌓아 올린 보계, 꽃잎형 팔찌, 원반형의 귀걸이, U형의 영락, 대좌 등에서 독특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이국적인 취향을 보이는 작품들이다. 그러면서도 전통양식의 천의식 보살상의 몇 요소와 결합함으로써 고려적인 독특한 라마식 보살상의 특징을 지니며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고려 후기 보살상들을 착의법이나 얼굴 표정, 자세와 영락 그리고 옷주름 형상 등의 비교를 통해서 형식 및 양식적 특징들을 도출해 보았다.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變形通肩式, 通肩式, 天衣式, 喇嘛式 등 4가지 유형으로의 분류가 가능하였다. 변형통견식과 통견식 보살상은 전통적인 보살상이 입는 천의 대신 여래식 법의를 입는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보계나 보발의 표현 등에서 서로 융합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살상이 천의 대신 여래식의 법의를 입는 경향은 중국의 경우 唐末 五代부터 시작하여 遼, 金에서 南宋代에 걸쳐 정착하게 되며, 고려의 경우는 고려 전기에 수용되어 후기부터 크게 보편화되는 착의 형식이다.

천의식 보살상과 라마식 보살상도 각자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혼재되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현상은 금강산이나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성이라는 지 왕실이나 귀족 등 화려한 취향의 발원자의 성격이 서로 비슷했던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외래요소의 수용면에서 보면 변형통견식 보살상의 착의법은 遼代와, 통견식 보살상의 대의 형식은 南宋과 관련되며, 두 유형의 공통점인 보계나 보발의 표현도 역시 송이나 남송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고려 중기 두 나라 사이의 불교문화 교섭을 통한 밀접한 관계를 불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천의식은 신라 이래 꾸준히 성행하는 천의를 걸치면서 송대에 유행하였고 고려 중기에 수용된 輪王坐와 遊戲坐의 자세로 앉은 보살상에 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리고 라마식 보살상은 원과 관련된다. 따라서 고려 후기는 고려와 관계를 맺었던 宋이나 遼, 南宋, 元 등의 외부적인 요소를 수용하여 고려적으로 변모시키면서 새로운 독창적인 양식을 성립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불화와도 착의법이나 금구장식,

목걸이나 영락의 표현 등 구성요소와 세부형상이 거의 같은 점에서 시대적인 양식경향에 의거하여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고려불상 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수도 개경의 중앙 양식이나 거의 공백에 가까웠던 고려 중기의 불교조각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고려 후기 보살상 양식의 시원과 다양성, 그리고 편년에 대한 새로운 규명을 해 보았다. 앞으로 일본에 있는 고려 후기의 불상이나 이 시기의 중국 불상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연구가 좀더 병행된다면 고려 후기 보살상의 전체적인 양상도 보다 명확하게 규명될 것이다.

* 주제어: 高麗 後期 菩薩像, 變形通肩式, 通肩式, 天衣式, 喇嘛式

ABSTRACT

A Study on the Bodhisattva Statues of the Late Koryo Dynasty

Jeong Eun-woo

Under the strong support from Royal family and the commonality of charity idea, many Buddhist sculptures were made during the late-Koryo dynasty (1270-1392) and around 100 sculptures still exist. The peculiarities of the sculpture at that time were various in the point of materials such as gilt-bronze, dry lacquer and wooden statue, and of votive offerings (腹藏物) consisting of different of things inserted inside the image.

The typical peculiarity is to succeed Buddhist sculpture type of traditional mid-Koryo dynasty affected by Song (1127-1279) and Liao dynasty (916-1125) and to accept Lamaist Buddha sculpture type depending on strong relationship with Chinese Yuan dynasty (1272-1368). That caused peculiar and diverse types of Buddhist sculpture compared to previous ones.

By comparing wearing garment, posture and ornamentation expression, Buddhist sculpture of late-Koryo dynasty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as follows.

The first one is ByunhyungTongkyun type (變形通肩式). The prominent elements of this style are the garment worn by covering both shoulders, the inner dress folding on the right arm, the revealing a metal ornament on the right side secured the inner dress, and the ribboned band across the chest. So it showed an omega shaped wrinkles at the left arm elbow and a half moon shaped hanging on the left shoulder. Some of images have a leaf shaped sleeve to the left knee. In addition to the above mentioned features, the Bodhisattva of the same type showed the extra characteristics such as the ornamentation

on the neck and the knee. Stylistic prototypes of this type can be found in China among sculptures of the Liao dynasty.

The second one is Tongkyun type (通肩式) which is usually shown in the Bodhisattva statue. The characteristic of this style is to wear garment covering both shoulder, to have pendant of five lined necklace on neck and knee, and sometimes to dress lavish ornamentation on the body. The sleeve is symmetrically thrown on over knee, and back hairs are divided into five group. This style is mainly found at Kyungsang province and seems to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Chinese Buddhist style and type shown in the period of Southern Song dynasty.

The third one is Chunui type (天衣式). It means that the scarf is thrown on over chest and could be seen at Bodhisattva statue postured in "Royal ease" (輪王坐 or 遊戲坐) which is popular in China during the Song dynasty. Among Bodhisattva statue of this type, by observing the style similar to Sudyana or statue sitting on the rock with bottle, it seems to be the Watermoon Avalokiteshvara made by sculpture. In particular, the Watermoon Avalokiteshvara in Koryo dynasty seems to have relationship with present secular religion linked to the traditional belief to seek the son (求子信仰).

The last one of late Koryo Bodhisattva sculpture is Lamaist stylized type (喇嘛式) which shows influence of Lamaist Buddhism. The statue of late Koryo dynasty has a characteristics in the point of Koryo expression combined with traditional element such as Chunui typed (天衣式) Bodhisattva statue. Due to the difference from Yuan or Tibetan style, it is called Lamaist style.

ByunhyungTongkyun type and Tongkyun type are common on the type of wearing Buddha's garment instead of scarf and on the expression of a topknot and hair over the shoulder. The Bodhisattva statue of Chunui type and Lamaist stylized type show the characteristics mixed with each feature. It means that the statue could be made in the area of Gaekyung—the capital city, and could be found favor especially among members of the court and aristocracy.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study on a new approach about the cause, variety and chronicle of Buddha image from the late Koryo dynasty. The paper also surveys a centralized style concentrated on Gaekyung area which few study has been made.